

보도시점 2025. 8. 13.(수) 09:00 배포 2025. 8. 13.(수) 09:00

취업자수 7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 고용률·경활률 7월 기준 역대 최고

- 제조·건설·농림어업 감소세 및 청년 고용 어려움은 지속
- 기업활력 제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, 청년·중고령 취업 지원 노력 강화

① '25.7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.4%로 전년대비 +0.1%p 상승, 15~64세 고용률은 70.2%로 전년대비 +0.4%p 상승하였다. 경제활동참가율은 65.0%로 전년대비 +0.1%p 상승하였으며, 실업률은 2.4%로 전년대비 △0.1%p 하락하였다.

* 7월 고용지표('24→'25년, %): <고용률> 63.3 → **63.4** <경활률> 64.9 → **65.0** <실업률> 2.5 → **2.4**

- 연령별로는 30대(81.0%, +0.5%p) 및 40대(80.0%, +0.8%p)·60세 이상(47.8%, +0.7%p)에서 고용률이 상승하였고, 청년층(45.8%, △0.7%p) 및 50대(77.6%, △0.2%p)에서 하락하였다.
- 15세 이상 경활률·고용률 및 15~64세 고용률은 7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, 1~7월 경활률(64.7%)·고용률(62.7%)·15~64세 고용률(69.7%)도 동기간 기준 역대 1위이다.

②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7.1만명 증가하여 금년 1월 이후 7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, 1~7월 기준으로 18.0만명 증가하면서 연초 정부 취업자수 전망(12만, 25.1월)을 지속 상회하였다.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4.7)17.2 ('25.1)13.5 (2)13.6 (3)19.3 (4)19.4 (5)24.5 (6)18.3 **(7)17.1**

- 업종별로는 서비스업(49.4→46.0만명)이 보건복지·전문과학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, 숙박음식·개인서비스업 등은 어려움이 확대되었다.
- 제조업(△8.3→△7.8만명) 및 건설업(△9.7→△9.2만명)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감소폭은 다소 축소되었고, 농림어업(△14.1→△12.7만명)은 최근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 영향 등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대 감소하였다.

- 지위별로는 상용직(31.8→31.9만명)·임시직(5.8→1.6만명)이 증가했고 일용직(△6.3→△4.8만명)은 감소하였다.

③ 청년은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(△17.3→△15.8만)되고 쉬었음이 3달 연속 전년비 감소하였다.

* 청년 쉬었음(전년비, 만명): ('24.7)4.2 ('25.1)3.0 (2)6.1 (3)5.2 (4)1.5 (5)△0.3 (6)△1.8 (7)△0.7

- 다만, 취업비중이 높은 숙박음식·제조업 고용 부진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청년층 고용여건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.

④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, 청년·중고령층 등 취업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.

- 「성장전략 TF」를 통해 기업활력 제고 및 신산업 육성방안을 지속 마련하고, 2차 추경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(9월말까지 85% 집행 목표)해 나갈 예정이다.
- 관세 관련 對美 세무협상 및 관세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- 최근 소비심리 개선세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처별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건설 등 분야별 투자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한다.
- 또한,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,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, 중고령층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.

기획재정부 <총괄>	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주성 (044-215-8530)
		담당자	사무관	이병준 (044-215-8532)
고용노동부 <공동>	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	책임자	과 장	천경기 (044-202-7260)
		담당자	사무관	신효빈 (044-202-7284)

1. '25.7월 고용동향 특징

□ 고용률 63.4% (월간 역대 1위), 경제활동참가율 65.0% (월간 역대 1위), 실업률 2.4%, 취업자수 +17.1만명 증가

○ 15세 이상 고용률 63.4%로 전년대비 상승(역대 1위, '82.7월~), 15~64세 고용률 70.2%로 +0.4%p 상승(역대 1위, '89.1월~)

* 고용률(15세+, %): ('24.3/4)63.3 (4/4)62.6 ('25.1/4)61.8 (2/4)63.5 [(6)63.6] **(7)63.4**
고용률(15-64세, %): ('24.3/4)69.8 (4/4)69.7 ('25.1/4)69.0 (2/4)70.2 [(6)70.3] **(7)70.2**

○ 경제활동참가율 65.0%로 +0.1%p 상승(역대 1위, '99.6월~)

* 경활률(15세+, %): ('24.3/4)64.7 (4/4)64.4 ('25.1/4)63.9 (2/4)65.4 [(6)65.4] **(7)65.0**

○ 실업률은 2.4%로 △0.1%p 하락(역대 최저 1위, '99.6월~)

* 실업률(15세+, %): ('24.3/4)2.2 (4/4)2.8 ('25.1/4)3.4 (2/4)2.8 [(6)2.8] **(7)2.4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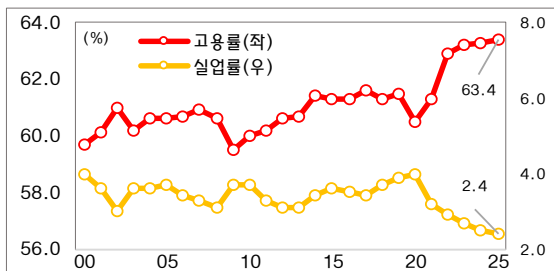
○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+17.1만명 증가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4.6)9.6 (7)17.2 ('24.下)9.9 ('25.1/4)15.5 (2/4)20.7 [(6)18.3] **(7)17.1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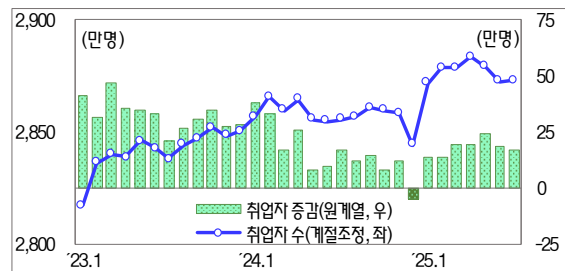
-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+0.3만명 증가

*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(전월비, 만명): ('24.3/4)△0.4 (4/4)△3.8 ('25.1/4)22.5 (4)4.8 (5)△4.4 (6)△6.4 **(7)0.3**

15세 이상 고용률·실업률(원계열, 매년 7월)



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(원계열, 계절조정, 전년비)



□ (산업) 서비스업 증가 지속, 건설업 감소폭 축소, 제조업·농림어업 감소폭 확대

○ (서비스) 53개월 연속 증가세이나, 증가폭은 축소(+49.4 → +46.0만명)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30.5 (4/4)26.8 ('25.1/4)43.9 (2/4)55.0 [(6)49.4] **(7)46.0**

- 보건복지(+26.3만)·부동산업(+2.9만)·예술여가(+3.1만) 등 증가폭 확대

* 보건복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8.5 (4/4) 6.9 ('25.1/4) 17.4 (2/4)22.2 [(6)21.6] **(7)26.3**

* 부동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△2.5 (4/4) 0.4 ('25.1/4)△0.5 (2/4)△0.2 [(6) 0.6] **(7) 2.9**

* 예술여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 1.5 (4/4) 0.7 ('25.1/4) 1.5 (2/4) 0.7 [(6) 0.4] **(7) 3.1**

- **전문과학(+9.1만)·금융보험(+3.8만)·교육서비스(+3.7만)** 등 증가 지속

* 전문과학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 7.1 (4/4) 7.8 ('25.1/4) 7.2 (2/4)11.1 [(6)10.2] **(7) 9.1**

* 금융보험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 2.8 (4/4) 2.7 ('25.1/4) 4.2 (2/4) 6.4 [(6) 5.4] **(7) 3.8**

* 교육서비스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 0.8 (4/4) 8.5 ('25.1/4) 4.2 (2/4) 7.0 [(6) 7.2] **(7) 3.7**

- **도소매(+1.3만)**는 최근 소비심리 개선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, 숙박음식(△7.1만)은 상반기 내수부진 영향으로 전월대비 감소폭 확대

* 도소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△7.4 (4/4)△11.1 ('25.1/4)△6.1 (2/4) 0.8 [(6) 1.0] **(7) 1.3**

* 숙박음식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 2.9 (4/4) 2.1 ('25.1/4)4.6 (2/4)△3.5 [(6)△3.8] **(7)△7.1**

* 소비자심리지수(CSI): ('25.5)101.8 (6)108.7 **(7)110.8** <49개월만 최대>

○ **(제조)**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, 수출 증가 등으로 감소폭 축소(△8.3→△7.8만명)

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△3.2 (4/4)△7.5 ('25.1/4)△8.1 (2/4)△9.1 [(6)△8.3] **(7)△7.8**

* 일평균 수출(전년비,%): ('25.1/4)2.3 (2/4)2.1 (6)6.8 (7)5.9

○ **(건설)**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흐름 등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 축소(△9.7→△9.2만명)

* 건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△8.8 (4/4)△11.5 ('25.1/4)△17.4 (2/4)△11.8 [(6)△9.7] **(7)△9.2**

* 건설수주(전년비, %): ('23.1/4)△14.5 (2/4)△31.2 (3/4)△43.2 **(4/4)23.2** ('24.1/4)△10.4 (2/4)20.7 (3/4)26.8 (4/4)9.7

○ **(농림)** 기상여건 악화(7월 중순 집중호우) 등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대 감소세 지속(△14.1→△12.7만명)

* 농림어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△3.6 (4/4)△2.5 ('25.1/4)△3.0 (2/4)△13.7 [(6)△14.1] **(7)△12.7**

* 조사기간(7.13~19) 평균 강수량(mm, '24.7→'25.7): (전국)16.8→39.9 (전남)14.8→39.0 (충남)17.7→66.8

□ **(지위·연령) 상용직 비중 57.6%(+0.8%p), 3~40대·고령층 고용률 상승**

○ **(지위)** 상용직 증가폭 확대(+31.9만명),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

* 상용직 비중(7월, %): ('00)29.8 ('05)34.1 ('10)41.6 ('15)48.0 ('20)53.6 ('24)56.8 **(25)57.6**

임금근로자 증감(6→7월, 전년비, 만명): <상용>31.8→**31.9** <임시>5.8→**1.6** <일용>△6.3→**△4.8**

-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(고용有·고용無)·무급가족종사자 모두 감소

* 비임금 증감(전년비, 6→7월 만명): <고용有> △21→**△25** <고용無> △4.5→**△4.1** <무급> △6.4→**△5.1**

- (연령) 30대·40대·고령층 고용률 상승, 청년층·50대는 하락

	전체	청년	30대	40대	50대	60세 이상
인구(전년비, 만명)	+16.8	△21.7	+7.1	△14.7	△4.7	+50.8
취업자수(전년비, 만명)	+17.1	△15.8	+9.3	△5.6	△4.9	+34.2
고용률(% , %p)	63.4 (+0.1)	45.8 (△0.7)	81.0 (+0.5)	80.0 (+0.8)	77.6 (△0.2)	47.8 (+0.7)

- 청년층 고용률(45.8%, △0.7%p) 하락, 실업률(5.5%, 0.0%p) 보합

(%, %p)		'24년	4/4	'25.1Q	2Q	5월	6월	7월
고용률	청년	46.1 (△0.4)	45.3 (△0.9)	44.5 (△1.5)	45.7 (△0.9)	46.2 (△0.7)	45.6 (△1.0)	45.8 (△0.7)
	20초	45.1 (△0.6)	43.9 (△1.8)	42.7 (△2.1)	44.5 (△1.5)	45.8 (△0.7)	44.7 (△1.3)	45.8 (△0.2)
	20後	72.5 (+0.2)	72.2 (△0.4)	71.2 (△1.4)	72.5 (△0.2)	72.7 (0.0)	72.4 (△0.3)	72.0 (△0.4)
실업률	청년	5.9 (0.0)	5.6 (+0.3)	6.8 (+0.4)	6.7 (+0.1)	6.6 (△0.1)	6.1 (△0.1)	5.5 (0.0)
	20초	6.3 (+0.5)	5.8 (+0.8)	8.1 (+0.7)	7.5 (+0.3)	7.7 (+1.0)	6.9 (+0.8)	5.8 (+0.4)
	20後	5.6 (△0.3)	5.6 (+0.2)	6.3 (+0.6)	6.4 (+0.2)	6.3 (△0.3)	5.7 (△0.5)	5.4 (△0.1)

- 청년층 쉬었음(43.6만명, △0.7만명)은 3개월 연속 감소

◇ 일자리 어려움 겪는 '실업자+취업준비+쉬었음' 비중(7월 13.4%, 106.5만명)은 '24년보다 상승(+0.1%p, △21만명)했으나, 예년('20~'24년 평균 14.3%)보다 낮은 수준

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·취업준비·실업자 비중(7월 기준, %)

(7월 기준, 만명, %)		최근 5년 평균 ('20~'24)	'20	'21	'22	'23	'24	'25
합계(A+B+C)	수(인구내비중)	122.6 (14.3)	143.5 (16.1)	131.1 (15.0)	118.8 (13.9)	110.8 (13.2)	108.6 (13.3)	106.5 (13.4)
실업자(A)	수(인구내비중)	29.7 (3.5)	40.6 (4.6)	30.8 (3.5)	29.5 (3.5)	25.2 (3.0)	22.3 (2.7)	21.0 (2.6)
취준생(B)	수(인구내비중)	52.0 (6.1)	58.8 (6.6)	60.4 (6.9)	53.2 (6.2)	45.4 (5.4)	42.0 (5.2)	41.9 (5.3)
쉬었음(C)	수(인구내비중)	40.9 (4.8)	44.1 (5.0)	39.9 (4.6)	36.1 (4.2)	40.2 (4.8)	44.3 (5.4)	43.6 (5.5)

* 최근의 청년층 쉬었음 증가추세는 수시·경력직 채용 증가로 구직·이전직 과정에서 '취업준비·실업 응답비율'이 감소하고, 일시적 쉬었음 편입이 증가하는 데에 일부 기인한 측면

-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

* 3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4.3/4)1.2 (4/4)0.8 ('25.1/4)1.0 (2/4)0.9 [(6)0.8] **(7)0.5 [81.0%]**
 4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4.3/4)0.6 (4/4)0.4 ('25.1/4)0.7 (2/4)0.9 [(6)0.8] **(7)0.8 [80.0%]**

- 50대는 인구감소 대비 취업자수 큰 폭 감소하며 고용률 하락, 60세 이상은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고용률 상승 지속

* 5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4.3/4)△0.5 (4/4)△0.2 ('25.1/4)△0.2 (2/4)△0.2 [(6)△0.2] **(7)△0.2 [77.6%]**
 60세+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4.3/4) 0.3 (4/4) 0.2 ('25.1/4) 0.9 (2/4)0.8 [(6) 0.7] **(7)0.7 [47.8%]**

2. 평가 및 대응

□ **취업자수가 7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경합률·고용률 역대 최고**
다만, 경기부진·대외 리스크 등에 따른 제조·건설업 및 청년 고용 부진 흐름 지속

- 취업자수 증가폭은 소폭 축소되었으나, 1~7월 취업자수는 18.0만명 증가하여 당초 전망치(12만명, '25.1월 연간 경제정책방향)를 상회
- 제조·건설업 등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, 감소폭은 다소 완화
 - 제조업은 2개월 연속 전월비 감소 등 어려움 상존하나, 美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완화가 향후 상방요인으로 작용 가능성
 - 건설업은 건설수주·착공면적 등 선행지표 점진적 개선에 따라 최근 4개월 연속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
 - 농림어업은 농촌인구 구조적 둔화와 함께 최근 기상여건 악화(4월 이상한파, 6~7월 집중호우) 등이 맞물려 4개월 연속 10만명대 감소 지속
- 서비스업은 보건복지·전문과학 등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 지속되나, 상반기 내수 부진 여파로 숙박음식·개인서비스 등 어려움 확대
 - 다만, 최근 소비심리 회복이 하반기 이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전망
- 청년은 3개월 연속 쉬었음 감소($\Delta 0.7$ 만) 등 일부 개선요인도 있으나, 취업비중 높은 숙박음식·제조업 고용 부진세 등 고용여건 어려움 상존

□ **기업활력 제고·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,**
청년·중고령 등 취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

- 「성장전략 TF」를 통해 기업활력 제고·신산업 육성방안 지속 마련하고, 2차 추경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(9월말까지 85% 집행)
- 對美 세무협상 및 관세 피해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만전
- 소비심리 개선세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처별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건설 등 분야별 투자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
-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, 취업 유인을 강화하고, 중고령층의 경력·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방안 강구